

종교적 벨러드의 연구

한 규 만

영어영문학과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요 약>

종교적 벨러드는 수요에 있어서도 미미하고 그 연구 또한 활발하지 못하다. 그 개념 및 본질 역시 정밀하게 구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II장에서는 개념을 우선 확정짓고, 그후에는 작품분석을 통하여 그 주제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 주제 또한 단순하지 않다. 성서적인 주제와 비성서적인 주제가 혼재되어 있다. 주제를 表面的인 主題와 裏面的인 主題로 구별하여 분석한다. 그런데 분석의 결과는 벨러드의 民이 성서적 주제보다는 비성서적인 주제를 선호함을 보여준다. 그들의 '정서적 핵심'은 독단적인 기독교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상 사회의 인본주의에 있는 것이다. 제 III, IV, V, VI장에서는 "Dives and Lazaus"의 死後의 應報문제, "Judas"의 배반, "The Cherry-Tree Carol"의 불경스러움, "The Bitter Wither"의 비기독교적인 면을 순서대로 다룬다.

1. 엄밀하게 말하자면 종교적 벨러드란 주제에 따른 분류라기 보다는 題材에 따른 분류로 본다.
2. 종교적 벨러드의 회귀함은 벨러드의 民이 종교교리에 친숙치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는 종교적 벨러드내에서도 드러난다.
3. 약자의 노래인 벨러드에는 당대에 용인되고 있는 주제는 표면적으로 내놓고, 진정으로 民이 말하고 싶은 주제인 이면적 주제는 작품내에 따로 있다.
4. 이면적 주제는 구석구석에 숨어있어서 찾아내기 어렵다. 표면적 주제는 작품내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지만, 이면적 주제는 말씨, 어휘, 사건의 해석방향 등에 부분부분 나타나 있다.
5. 종교적 벨러드의 이면적 주제는 봉건적 가부장사회의 여성경시풍조에 대한 항거, 독단적이고 추상적인 종교교리의 배격, 인간의 수단화 반대, 수직적 사회구조에 대한 반발 등이며, 궁극적으로는 남녀평등의 실천, 신으로부터 인간의 해방,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사회구조, 경험적인 현실주의의 주창 등이다. 개괄하자면 중세사회의 神本主義·家父長的 사회질서의 붕괴와 人本主義·水平的 사회질서의 도래를 꿈꾸는 것이 종교적 벨러드의 이면적 주제이다.
6. 본 연구를 통하여 종교적 벨러드의 본질은 기독교적 종교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본주의적 비종교성에 있음이 밝혀졌다.

(A Study on Religious Ballads)

(Han, Kyu-man)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BSTRACT

Religious ballads are rare and only a few papers on them are produced. And the definition and literary traits of 'religious ballad' are not fully studi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term 'religious ballad' and to find out its themes: biblical and non-biblical ones. To explain the contradictory themes in the same ballad, the terms 'external theme' and 'internal theme' are introduced. Chapter I deals with the significance and the aims of the study. Chapter II defines the term 'religious ballad.' Chapters III, IV, V, VI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Bible stories and those of "Dives and Lazarus," "Judas," "The Cherry-Tree Carol," "The Bitter Wither." The chapters focus on non-biblical themes: the punishment and reward after death, the treachery, the blasphemy and the unchristianity.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Most scholars are said to classify the religious ballads by themes. But they, in the strict sense, classify them by subject.
2. A paucity of religious ballads means that ballad folk are not interested in religious thoughts and dogmas. And such an attitude is also revealed within religious ballads themselves.
3. Ballad folk, the weaker part of people, could not express their own feelings and thoughts freely in ballads. That's because the aristocrats, males and churchmen ruled the people strongly. This leads them to show the accepted morals and themes outwardly and to conceal the folk's ideas of religion and society inwardly.
4. Their own attitudes and emotions are not revealed in the whole structure of a ballad but expressed in the details of events, diction, and vocabulary.
5. Internal themes of religious ballads are the protests against the contempt of females in the feudal patriarchal society, and against the negligence of human thoughts forced by dogmatic and abstract religion. They can be regarded as struggles for the equality of the sexes, liberation of humanities, and pragmatic and realistic life.
6. The true nature of religious ballads lies not in religious thoughts and dogmas, but in *non-biblical humanism and realism*.

목 차

- I. 서 론
- II. 종교적 벨러드의 개념분석
- III. "Dives and Lazarus" 분석
- IV. "Judas" 분석
- V. "The Cherry-Tree Carol" 분석
- VI. "The Bitter Wither" 분석
- VII. 결 론

I. 서 론

영미의 포크 벨러드는 口碑律文으로서 敘事構造를 가지고 있다. 문학적으로는 律文이며 음악적으로는 謠이고, 서사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敘事詩(epic)와는 매우 다르다. 벨러드의 복잡함과 애매함 때문에 학자에 따라 벨러드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Albert B. Friedman이 *PEPP*에서 내린 "a short narrative song preserved and transmitted orally among illiterate or semiliterate people"¹⁾이라는 정의가 무난하다고 본다. 그는 벨러드의 발달지역에 따라 약간의 상이점을 가지지마는 유럽의 벨러드는 세가지 공통점을 가진다고 말한다:

(1) Ballads focus on a single crucial episode or situation.

.....

(2) Ballads are dramatic.

.....

(3) Ballads are impersonal.²⁾

벨러드에 대한 정의에 이은 공통점의 지적 또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Friedman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종교적 벨러드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방법론으로는 민요의 음악적, 민속적, 문학적 연구방법 중에서 가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학적 연구방법을 택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소수 엘리트가 만드는 예술적 문학만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한 민족의 문학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내기 어렵다. 모든 나라의 문학의 시초는 口碑律文이다. 따라서 영미문학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둘째, 영미의 낭만주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20세기에 와서는 민요부흥운동이 일어난 근원을 파악한다는 점에서도 벨러드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대부분의 벨러드가 낭만적 비극에 속하기 때문에 이 방면의 연구는 활발하지만 종교적 벨러드는 그 수효도 적고 이에 대한 연구도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벨러드연구의 미개척분야를 탐색하는 일은 그 범위를 확장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넷째, 종교적 벨러드 역시 벨러드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고, 종교와 친숙치 않은 기층민들의 종교에 대한 노래이기

1) Albert E. Friedman(ed.), "Ballad,"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4), p. 62.

2) *Ibid.*

때문에 더욱 흥미롭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Albert Friedman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벨러드연구자들은 ‘종교적 벨러드’를 주제별 분류의 한 항목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분류방식에 이의를 가지고 있다. 종교적 벨러드내에는 거의 예외없이 성경의 사건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벨러드가 성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다. 종교적 벨러드에는 기독교적인 요소와 비기독교적 요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는 벨러드의 제작자이며 향유자인 기층민들의 관심이 성경 또는 정통교리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체질적으로 종교적 도그마나 관념적인 도덕물에 구애받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적 벨러드의 비종교성을 찾아내는 것이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벨러드의 사실성과 문학적 개연성을 충분히 입증하게 될 것이다.

II. 종교적 벨러드의 개념분석

종교적 벨러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종교적 벨러드의 ‘종교적’이라는 수식어의 개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벨러드를 분류함에 있어서 ‘종교적 벨러드’의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다음 장에 계속되는 작품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Albert Friedman은 *The Penguin Book of Folk Ballads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1956)에서 벨러드를 15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두번째 항목인 ‘Religious Ballads’에 “Judas” “The Cherry-Tree Carol” “The Bitter Withy” “Sir Hugh(The Jew’s Daughter)”를 수록하였다. 또다른 벨러드選集者인 Geoffrey Grigson은 *The Penguin Book of Ballads* (1975)에서 ‘Earlier Ballads’와 ‘Later Ballads’의 두 항목으로 벨러드를 분류하였는데 “Saint Stephen and Herod” “The Cherry-Tree Carol” “The Maid and the Palmer” “The Seven Virgins” “The Bitter Withy” “In Dessexshire As It Befell” “The Royal Fisherman” “Brown Robyn’s Confession” “The Holy Well” 등을 ‘Earlier Ballads’의 첫 부분에 실고 있다. 이 작품들은 성서에 관계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Friedman의 분류법에 따르면 종교적 벨러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노래들이다. Friedman이나 Grigson의 선집이 Francis J. Child의 *The English and Scottish Popular Ballads* (5 vols.) (1882~1898)에 근거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두 선집중에서 Friedman의 분류방법을 소위 주제별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Alan Bold는 “주제별 배열이 훌륭하다”³⁾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가 엄밀한 의미에서 맞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M.J.C. Hodgart는 Child의 분류와 흡사하게 벨러드를 분류하였는데 D.K. Wilgus가 Hodgart의 분류를 정리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

In *The Ballads*, Hodgart has made a more detailed division of the Child canon :

1. Ballads belonging to the common stock of international folksong :
 - (a) Ballads of magic
 - (b) Romantic and tragic ballads
2. Ballads from the repertoire of the late medieval minstrelsy

3) Alan Bold, *The Ballad : The Critical Idiom Series 41*, (London : Methuen & Co. Ltd., 1979), p. 97.

3. Ballads of yeoman minstrelsy
4. Historical ballads :
 - (a) Fully historical, dealing with real national events
 - (b) Semihistorical, dealing more vaguely with minor and local events
5. Comic songs⁴⁾

That these classifications “approximate to Child’s divisions” can be accepted only with a considerable stretching of the meaning of *approximate*, as Hodgart’s own discussion shows.……Whatever their relation to the problem faced by “the master” in organizing his material, Hodgart’s divisions are a convenient guide to the corpus and the most accurate yet established. Like all proposed classifications, the divisions confuse pure subject matter with origin, but less so than most.⁵⁾

Wilgus의 말대로 현재까지 벨러드를 분류하는데 “편리한 지침이며 가장 정확”한 분류표를 제공한 Hodgart는 그의 저서에서 벨러드의 분류기준으로 ‘subject-matter’ ‘pouularity with folksingers’ ‘geographical distribution’의 세가지를 제시하였다 :

The ballads can be classified in many ways, but the three most important are : by subject-matter, by popularity with folksingers, and by geographical distribution.

Child arranged his ballads by subject-matter……⁶⁾.

그는 이어서 Child의 분류와 흡사하게 작품을 분류하였는데 Wilgus가 정리한 Hodgart의 분류표를 좀더 세밀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Most of the best ballads are in the first group, which includes about eighty-five.

I .

The Riddle Ballads : 1—3

Other Supernatural Ballads : among 4—28 and 39—52

The Ballads of Romance and Tragedy : among 4—28 and 29—52

Other Fine Ballads of This Type : 12, 13, 58, 62, 63, 69, 73, 81, 93, 114

II .

The Ballads from the Medieval Romances : 29—38, 17

The Ballads on Christian Subjects : 23, 54, 56

III .

The Ballads of Yeoman Minstrelsy : 115—154

IV .

Historical Ballads : 156—168

4) D.K. Wilgus, *Anglo-American Folksong Scholarship Since 1898*, (New Brunswick : Rutgers Univ. Press, 1959), p. 264.

5) *Ibid.*

6) M.J.C. Hodgart, *The Ballads* (New York : W.W. Norton & Company Inc., 1962), p. 13.

Semi-historical Ballads : 169—271

V.

Comic Songs : 274⁷⁾

본 논문과 연관하여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II의 ‘The Ballads on Christian Subjects’이다. Wilgus와 Hodgart가 지적한 것과 같이 종교적 뱌러드라 함은 題材(subject)에 따른 분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Friedman이 분류한 항목인 ‘종교적 뱌러드’는 主題(theme)에 따른 분류항목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主題와 題材라는 용어를 엄격히 분리해서 쓰기로 한다. 종교적 뱌러드가 題材에 따른 항목이라면 다음으로 종교적 뱌러드의 주제를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의 개념을 M.H. Abrams가 내린 정의 즉 “Theme ... is more usefully applied to an abstract claim, or doctrine, whether implicit or asserted, which an imaginative work is designed to incorporate and make persuasive to the reader.”⁸⁾에 따르고자 한다.

III. “Dives and Lazarus” 분석

첫 분석대상인 “Dives and Lazarus”는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복음서의 여러 비유담 중에서 유일하게 死後의 應報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우선 성경과 뱌러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누가복음 16장 19~31절〉

—전반부—

- 19절 : 한 부자가 세상열락을 즐기며 살고 있다.
 20절 : 나사로라는 거지가 부자집 문앞에 누워 있다.
 21절 :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다. 개들이 상처를 핥는다.
 22절 :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죽어 지옥으로 간다.

—후반부—

- 23절 : 부자가 지옥의 고통중에 아브라함과 나사로에게 소리친다.
 24절 :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물로 목을 축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25절 :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부자는 살아서 세상열락을 즐겼으나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으니 죽어서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답한다.
 26절 : 또한 천국과 지옥사이에는 건널수 없는 큰 수렁이 있다고 말한다.
 27~28절 : 부자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 다섯형제에게 지옥의 고통에 대해 경고해줄 것을 간청한다.
 29절 : 아브라함은 부자의 청을 거절하며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경고했다고 말한다.

7) *Ibid.*, pp. 14~17.

8) M. 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1), p. 111.

30절 : 부자는 죽은자가 가서 경고하면 회개할 것이라고 계속 간청한다.

31절 :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가 죽은 자의 말을 들을 리 없다고 거절하고 만다.

〈“Dives and Lazarus” 벨러드〉

—전반부—

제1연 : 한 부자가 친구와 명문귀족들에게 향연을 베푼다.

제2연 : 나사로는 부자집 문앞에서 구걸을 한다.

제3연 : 부자는 나사로가 자기의 형제가 아니라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제4연 : 나사로는 계속 간청한다.

제5연 : 부자는 나사로를 저주한다.

제6연 : 나사로는 문옆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간청한다.

제7연 : 부자는 계속 거절한다.

제8연 : 부자는 시종을 시켜 나사로를 쫓으려 하나 매질할 힘을 잃고 채찍도 버린다.

제9연 : 부자는 개들에게 나사로를 물도록 하나 개들은 물어뜯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훑아 낮게 한다.

제10~11연 :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되자 두 천사가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제12~13연 : 부자가 병들어 죽게되자 뱀 두마리가 그의 영혼을 지옥의 음부로 인도한다.

—후반부—

제14연 : 이제 부자는 나사로가 축복받았음을 안다.

제15~16연 : 지옥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염려하며 반시간이나마 재생하여 평온을 누리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성경과 벨러드의 문학적 특성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과 저승에 관한 내용을 보면 성경이 전자에 12절중 4절을 할애하고 후자에 8절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벨러드는 16연중 전자에 13연 후자에 단지 3연을 할당하고 있다. 이는 벨러드가 성경보다 현세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등장인물에 있어서 성경의 전반부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후반부에서 부자와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반면, 벨러드의 전반부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나타나는 것은 성경과 동일하나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차이를 이룬다. 이는 현세에 관심을 갖는 벨러드의 民이 절대권위의 신적인 존재와는 친숙치 못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화방식에 있어서도 성경의 전반부가 경제적인 면에서 상하관계를 그리고 후반부가 도덕적인 면에서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반면, 벨러드는 나사로를 중심으로 보자면 경제적 수직관계를 형제애에 바탕을 둔 수평관계로 보려는 시각이 나타나 있다. 물론 부자는 경제적 수직관계를 지속시키려고 계속 노력한다. 제2~3연과 제6~7연에서 극명히 나타난다 :

Then Lazarus laid him down and down

And down at Dives' door:

Some meat, some drink, brother Dives,

Bestow upon the poor.

Thou art none of my brother, Lazarus,
That lies begging at my door;
No meat nor drink will I give thee
Nor bestow upon the poor.

(stanzas 2 and 3)

Then Lazarus laid him down and down
And down at Dives' gate:
Some meat, some drink, brother Dives,
For Jesus Christ his sake.
Thou art none of my brother, Lazarus,
That lies begging at my gate;
No meat nor drink will I give thee
For Jesus Christ his sake.

(stanzas 6 and 7)

넷째, 성경의 문체가 설명과 훈계를 위해 딱딱하고도 만연체의 양상을 띠는 반면, 뱌러드는 극적인 전개를 통하여 간절체로 부자에 대한 증오와 나사로에 대한 연민의 정이 일어나도록 대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비는 성경에 가장 충실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Dives and Lazarus”의 주제가 성경의 경우와 같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성경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확연히 다른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 길으로는 기독교의 반물질주의적 태도에 동조하면서도 안으로는 기독교 교리의 관념성, 神本主義에 비판을 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수평적 사회구조, 현재중심 생활을 추구하는 人本主義를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Judas” 분석

유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인에게 비교적 흔한 편이며 성서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이가 여러 명 있다. 종교적 뱌러드인 “Judas”에 나오는 유다는 예수를 배반한 Judas Iscariot이다. 그는 급진적 민족주의자로서 예수가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 지도자이기를 바랐던 사람이다. 마가복음서 제11~14장에 따르면 예수를 질시하는 성직자들이 예수를 은밀하게 잡으려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개적으로 행동하였다가는 대중봉기가 일어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들은 제발로 찾아온 가롯유다에게 뇌물을 주어 적당한 때에 예수를 잡아들이게 된다. 이 사건은 마가 및 마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 후자에 훨씬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마태복음서와 뱌러드의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제26~28장>

26 : 3~5—유월절이 가까와졌을때 예수에 대한 반대자들의 적개심이 극에 달한다.

- 26 : 14~15—가롯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삼십에 예수를 판다.
 26 : 17~19—제자들이 예수가 시킨대로 유월절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
 26 : 20~21—예수는 자신이 제자에 의해 배반당할 것을 예고한다.
 26 : 22~25—예수는 배반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배반자는 유다임이 암시된다.
 26 : 31~35—예수가 베드로의 세번 부인을 말하나 베드로는 맹세한다.
 26 : 45~47—배반자의 근접을 알리자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가 나타난다.
 26 : 48~50—유다가 예수에게 입맞추자 무리가 예수를 잡으려 한다.
 26 : 51~52—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중 하나가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자 예수가 검을 꽂으라고 명한다.
 26 : 59~68—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일 거짓증거를 찾느라고 혈안이 된다.
 27 : 1~2—예수는 빌라도에게 넘겨진다.
 27 : 3~4—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은삼십을 돌려주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받지 않는다.
 27 : 5—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 목매어 죽는다.
 27 : 6~10—그들은 그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는다.

〈“Judas” 벨러드〉

- 제1~3연 : 예수가 유다에게 먹을 양식을 사오라고 하면서 은삼십을 준다. 큰길로 갈 것을 당부한다.
 제4~7연 : 길을 가다가 사악한 여자를 만난다. 유다에게 거짓선지자를 믿는다고 헐박을 한 후, 여인은 유다를 꺾어 자고하게 한다.
 제8~9연 : 잠에서 깨어난 유다는 은삼십을 강탈당했음을 알고나서 반미친 사람이 된다.
 제10~12연 : 빌라도가 다가와 예수를 팔겠느냐고 묻자 유다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다.
 제13~15연 :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 제자들의 음식을 위해 자신이 팔렸음을 알린다. 예수와 유다의 대화가 오간다.
 제16~18연 : 예수는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것을 예언한다.

이상의 내용정리에 따르면 많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인물상호간의 태도나 기록자의 태도 및 시각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장인물물 주연급 인물(major character)과 조연급인물(minor character)로 분류하자면, 성경에서는 예수와 유다가 전자에 해당하며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후자에 해당한다. 반면 벨러드에서는 유다와 사악한 여인이 전자에 예수와 빌라도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Judas”는 문학적으로 탁월한 작품으로 보이는데, 벨러드에서 유다는 비극의 주인공으로까지 격상되고 있다. 그는 성격면에서 미미한 성격이 아니라 주된 성격이며, 안정된 성격이 아니라 발전하는 성격이며, 평면적 인물이 아니라 입체적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악덕(vice)때문이 아니라 그의 결점(frailty)때문에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다. 둘째, 유다의 배반원인에 대하여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 없으나 열혈당원으로서 유다는 정치적 지도자이기를 거부하는 예수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벨러드에는 사악한 여인의

유혹과 이를 물리치지 못하는 유다의 결점때문에 배반이 잉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예수가 유다를 보는 시각은 성경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존재로 나타나 있지만, 벨러드에서는 유다를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는 않다고 예수가 말한다. 넷째, 유다에 대한 해설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유다를 운명적인 배반자로 보는 반면, 벨러드에서는 스승이 준 돈을 한 순간의 실수로 강탈당한 후 제정신이 아닌 제자가 스승의 분부를 수행키 위해 어처구니없이 또다른 실수를 저지르는 가련한 존재로 보고 있다. 다섯째, 빌라도는 성경에서는 예수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대제사장들의 성화에 못이겨 예수를 죽게 놔두는 소극적 살인자로 나타나지만, 벨러드에서는 수백명의 부하를 이끌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 적극적 살인자로 나타나 있다.

이상의 대비를 종합해 볼 때, 주제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우선 표면적 주제인 ‘유다는 배반자이다’는 성경과 벨러드 양자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유다를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 성경에서는 예수나 기록자 모두가 배반의 직접원인으로 유다를 보고 있는 반면, 벨러드에서는 유다를 비극의 주인공 나아가서 유다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성경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셈이다. 벨러드는 문학적으로 성경보다 훨씬 다양하고도 깊은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Judas”의 裏面的 主題는 신의 사업을 이룩하기 위해 희생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동정이며, 한편으로는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신에 대한 항거이다. 또한 남성의 ‘범죄의 근원에는 사악한 여인이 있다’는 동서고금의 보편적 진실을 전하고 있고 그러한 여인을 멀리하라는 교훈도 함께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V. “The Cherry-Tree Carol” 분석

이 작품 역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작품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성경의 시각이나 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 작품 역시 성경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民(folk people)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성경과 벨러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제1장 18~24절〉

18절 :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다.

19절 :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히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20~23절 : 요셉이 고민 하던 중,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 임신한 것이니 부인으로 삼으라고 권한다. 또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한다.

24절 :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후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다.

〈“The Cherry-Tree Carol” 벨러드〉

제1연 : 나이든 요셉이 갈릴리에서 마리아와 결혼을 한다.

- 제2~3연 : 부부가 함께 과수원을 걷는데, 빨간 버찌와 딸기가 많이 열려 있다.
- 제4연 : 온화한 마리아가 요셉에게 버찌를 따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기를 가졌음을 알린다.
- 제5연 : 요셉은 마리아에게 아이를 배게한 남자에게 버찌를 따달라고 부탁하러면서 통명스럽게 답한다.
- 제6연 : 그때 마리아의 자궁안에 있던 아기가 가장 키 큰 나무에게 마리아가 버찌를 딸 수 있도록 구부릴 것을 명한다.
- 제7연 : 그러자 나무가 마리아의 손에 닿게 되고 마리아가 요셉에게 외친다.
- 제8연 : 그때야 요셉은 마리아에게 잘못을 빌며 용기를 북돋운다.
- 제9연 : 드디어 마리아는 버찌를 잔뜩 따서 집으로 돌아간다.
- 제10연 : 세월이 지나 마리아는 아이를 낳았고, 무릎에 앉히고는 아이에게 이 세상의 장래를 묻는다.
- 제11연 : 예수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길거리의 돌들이 자기때문에 슬퍼할 것이라고 말한다.
- 제12연 : 또한 자신이 부활절에 다시 살아날 것과 해와 달도 함께 떠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의 정리된 내용을 대비하면 몇 가지 중요한 상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하지만 벨러드는 냉혹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또한 요셉이 나이든 사람으로 나온다. 둘째, 사건의 발생시점이 다르다.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약혼중에 임신을 하지만 벨러드에서는 결혼한 후에 사건이 전개된다. 첫번째와 두번째 상이점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성경은 요셉이 건장한 청년임을 가정한다. 따라서 요셉이 생식능력이 왕성하지만 동거한 적이 없는데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벨러드는 요셉을 나이든 사람으로 묘사한다. 따라서 요셉이 생식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후에도 아기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당연히 화를 내는 것이다. 셋째,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일반인은 거의 본 적이 없는 천사의 설명으로 요셉이 납득하지만 벨러드에서는 자궁속의 아이가 직접 신통력을 발휘하여 요셉을 수긍케 한다. 넷째,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는 성경에 별 언급이 없으나 벨러드는 모자간에 당연히 있는 모습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끝맺는다. 벨러드의 끝부분에서 아기예수는 자신이 부활절에 부활하리라는 예언을 한다. 예수의 신통력 발휘와 함께 이 자체모순적인 예언은 예수의 초능력을 벨러드의 민이 믿었다는 증거이다.

위 네가지의 상이점에 근거하여 주제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벨러드는 성경과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납득으로 인해 마리아의 순탄한 가정생활의 영위, 예수의 초월적인 능력 등은 聖母와 聖子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것이 “The Cherry-Tree Carol”의 表面的 主題이다. 그러나 결과는 달리 성경의 근본가정을 뒤흔들어 놓는 부분들이 있다. 요셉의 현실적인 대응, 어머니의 자궁에서 신통력을 발휘하는 효자의 모습과는 달리 불경스러운 어휘의 고의적 사용 등의 민의 태도가 숨겨져 있다 :

O then bespoke Mary, so meek and so mild:
 “Pluck me one cherry, Joseph, for I am with child.”

O then bespoke Joseph, with words most unkind:

“Let him pluck thee a cherry that brought thee with child.”

O then bespoke the babe, within his mother’s womb:

“Bow down then the tallest tree, for my mother to have some.”

(stanzas 4—6)

특히 남성인 요셉을 냉혹한 사람으로 변형시킨 것은 벨러드가 주로 여성에 의해 불리워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The Cherry-Tree Carol”의 裏面的 主題는 남성지배 사회에 대한 항거, 신격화되어 있는 요셉에 대한 거부감, 천사라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불신감의 표시이며 궁극적으로는 요셉의 지극히 현실적 태도의 수용, 임신에 대한 개연성있는 해석 등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神本主義에 반하여 종교를 초월한 人本主義의 선양이라고 할 수 있다.

VI. “The Bitter Withy” 분석

Albert Friedman은 그의 선집에 나오는 작품을 해설하면서 “The Bitter Withy”는 ““Judas”와 마찬가지로 正典이나 公式的인 敎會聖徒傳 등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¹⁰⁾라고 말한다. 제IV장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Judas”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비해 “The Bitter Withy”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Friedman의 말은 “The Bitter Withy”에 관한 정당하다. 이 작품에는 예수와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부자집 아이들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의 어느 특정부분을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분석은 벨러드 자체의 분석에 국한할 수 밖에 없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he Bitter Withy” 벨러드〉

제1연 : 비가 오는 어느 聖日에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공차기를 해도 좋은지를 묻는다.

제2연 : 마리아는 허락을 해주면서 말썹 피우지 말고 집에 돌아올 것을 당부한다.

제3연 : 즐거워하는 세 소년을 만나 함께 놀자고 말한다.

제4연 : 아이들은 예수가 외양간에서 태어난 가난한 집안 아이라고 말한다.

제5연 : 이 말에 상심한 예수는 자기가 귀족아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한다.

제6연 : 예수가 태양빛으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자 세 소년도 따라 건너다가 모두 빠져 버린다.

제7연 : 세 소년의 어머니들이 마리아에게 자기 아이들이 빠졌다고 소리친다.

제8연 : 마리아는 예수를 불러 한 움큼의 버들개지로 종아리를 때린다.

제9연 : 그러자 예수는 자신을 아프게 한 나무더러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라고

9) Albert B. Friedman, *The Penguin Book of Folk Ballads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New York : The Viking Press, Inc., 1956) pp. 60~61.

소리친다.

이 작품에는 다른 작품분석에서 나타난 表面的 主題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표면적으로 성경의 인물을 내세웠지만 裏面的으로는 성경과 전혀 다르다. 벨러드의 民의 감정이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주요부분은 모두 비기독교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2연은 작품전체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예수가 사고뭇치임을 시사한다 :

“To play at ball, my own dear Son,
It's time You was going or gone,
But be sure let me hear no complain of You,
At night when You do come home.”

(stanza 2)

둘째, 제4연에서 부자집아이들이 신분의 차이를 내세우자 제5연에서 예수는 어린아이이지만 사회의 신분적 모순을 피부로 느끼고 비장한 각오를 한다 :

“If you are lords' and ladies' sons,
Born'd in bower or in hall,
Then at last I'll make it appear
That I am above you all.”

(stanza 5)

셋째, 제6연에서 예수는 자신의 초능력으로 즉각 보복을 행한다. 넷째, 제8연에서 마리아가 예수에게 매질을 하자 예수는 제9연에서 즉각 자신을 아프게한 회초리를 감정적으로 저주한다 :

Then He says to His mother, “Oh! the withy, oh! the withy,
The bitter withy that causes me to smart, to smart,
Oh! the withy, it shall be the very first tree
That perishes at the heart.”

(stanza 9)

위 지적에 나타난 대로 “The Bitter Withy”에서의 예수의 행동은 철저히 비기독교적이다. 사랑보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사고가 담겨 있다. 이 작품은 본 논문에서 분석한 작품 가운데 벨러드의 民의 정서가 가장 솔직하게 표현된 작품이다. 이를 주제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he Bitter Withy”가 철저히 비기독교적으로 보이지마는 예수는 특별한 인간이며 異蹟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라는 점은 성서의 기본 출발점이다. 바로 이 점이 이 작품의 表面的 主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의 裏面的 主題는 다른 작품과 달리 비교적 잘 드러나 있다. 신분중심의 수직적 사회구조에 대한 반발이 이면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는 民의 정서나 태도가 잘 드러나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보고자 하는 民의 시각이 보인다. 그들의 현실적이며 경험적인 인식이 특히 눈에 띈다.

VII. 결 론

본 논문에서 다룬 작품들은 여타의 벨러드가 그러하듯이 중세의 전제적 가부장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당대의 사회를 지탱하던 이념의 원천이 기독교라는 종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배층의 통치이념으로서 중세기독교는 원시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었다. 상당한 부분이 지배층의 이해득실에 따라 변형되고 왜곡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피지배층을 적절히 지배하기 위하여 중세로망스 등을 바탕으로 종교적 벨러드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적 벨러드의 기원이 대중적이지 않다고 Hodgart가 말한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종교적 벨러드가唱着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것이다:

The class derived from the medieval romances consists of the least "popular" ballads. They are certainly not "popular" in origin and are almost certainly deliberate adaptations by minstrels in the late middle ages. Few of them have ever been popular with folksingers.¹¹⁾

이와 같이 종교적 벨러드의 기원은 종교적이지만 현존하는 종교적 벨러드가 매우 비종교적임이 본 논문을 통하여 예증되었다. 이는 벨러드가 구비전승이라는 특수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벨러드는 최초의 작자가 있었을지라도 원래 모습대로 전승되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면서 무수한 상황속에서 무수한 사람이 異形을 만들어 낸다. 현재 우리가 듣는 벨러드는 그 중에서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아 인기를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벨러드가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출발하였지만 변이를 거듭하면서 民의 사고와 신념이 유입되어 異質的인 要素들이 混在되어 있다. 이와같은 일반론에 따라 주요 종교적 벨러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종교적 벨러드라 함은 主題의 分類의 項目이기 보다는 題材의 分類項目으로 본다.
2. 종교적 벨러드가 희귀하다함은 民이 정서적으로 친숙치 않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종교적 벨러드에는 비기독교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3. 벨러드는 약자의 노래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어떤 주제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 다른 주제를 내포시킨다.
4. 이면적 주제가 벨러드의 진정한 주제인데 이는 작품 구석구석에 박혀 있기 때문에 파악해내기 쉽지 않다.
5. 종교적 벨러드의 이면적 주제는 봉건적 가부장사회의 여성경시풍조에 대한 항거, 독단적이고 추상적인 종교교리의 배격, 인간이 수단화되는 것에 대한 반발, 수직적 사회구조에 대한 반발 등이며, 궁극적으로는 남녀평등의 실천, 신으로부터 인간의 해방,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사회구조, 경험적인 현실주의주창 등이다. 개괄하자면 중세사회의 神本主義·家父長的 사회질서를 人本主義·水平的 사회질서로 대치하고 싶은 民의 희망과 꿈이 종교적 벨러드의 이면적 주제이다.
6. 본 연구를 통하여 종교적 벨러드의 본질은 기독교적 종교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본주의적 비종교성에 있음이 밝혀졌다.

11) Hodgart, *op. cit.*, p. 15.

I . TEXT

- Buchan, David(ed.). *A Book of Scottish Ballads*. London and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73.
- Friedman, Albert B. (ed.). *The Penguin Book of Folk Ballads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New York : The Viking Press, Inc., 1956.
- Grigson Geoffrey (ed.). *The Penguin Book of Ballads*.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Ltd., 1975.
- Kinsley, James (ed.). *The Oxford Book of Ballad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II . BIBLIOGRAPHY

- Abrams, M. H. *A Glossary of Literary Terms(Fourth Edi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1.
- Ben-Amos, Dan (ed.). *Folklore Genres*. Austin :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6.
- Bold, Alan. *The Ballad : The Critical Idiom Series 41*. London : Methuen & Co. Ltd., 1979.
- Buchan, David. *The Ballad and the Folk*. Boston : Routledge & Kegan Paul Ltd., 1972.
- Coffin, Tristram P. "Mary Hamilton and the Anglo-American Ballad as an Art Form," *The Critics and the Ballad*, eds. MacEdward Leach and Tristram P. Coffin. Carbondale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1.
- Hodgart, M. J. C. *The Ballads*.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1962.
- Karpeles, Maud. *An Introduction to English Folk Song*.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Preminger, Alex et al (eds.). "Ballad," "Folksong,"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enlarged edition*.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 Propp, Vladimir. *Theory and History of Folklore*, trans. Ariadna Y. Martin and Richard P. Martin. Minneapolis :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 Trawick, Buckner B. *The Bible as Literature : The New Testament*.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68.
- Wilgus, D. K. *Anglo-American Folksong Scholarship Since 1898*. New Brunswick : Rutgers University Press, 1959.